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 버 지



토요일 오후, 바쁜 남편 대신 결혼식장에 가야했습니다. 복잡한 길을 지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은채 축의금을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축의금을 전해주고는 곧장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식장과 너무나 다른 분위기가 나를 끌어 당겼습니다. 신랑측은 어느 분위기와 다를 바 없이 웅성거렸

지만, 오른쪽에 있던 신부 하객들은 대부분 침묵한 채 부지런히 손만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말을 못하는 병어리였습니다.

"신부 친정 식구들이 듣지를 못한 대. 그래서 그렇게 결혼 반대가 심했구만." 이렇게 신랑측에서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등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 나오고, 심장은 마구 도리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결혼식 때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쪽 어른이 함께 인사하던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수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결혼식 때 나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큰 삼촌이랑 고모하고 혼주석에 앉고 나는 멀찌감치 뒤에 있오마. 못 듣기 때문에 네 손을 잡고 못 들어가겠다.' 물론 그때 식구들은 무슨 말씀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입장 때 소리를 못 듣는 아버지가 실수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 내가 염려한 대로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심조심 입장하던 아버지는 주례사의,

"신부 아버지는 이제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로 인계해 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순간 나는 당황하여 더 가지 마시라는 신호로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았는데 눈치를 못 채신 아버지는 그만 단상 위까지 올라가실 뻔했고, 신랑은 어정쩡하게 그 옆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하객쪽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하객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섰습니다. 결혼식 내내 아버지는 땀을 닦으시며 안절부절이셨고, 옆에 앉아계신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일어나고, 앉고, 사진 찍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수화 통역자가 아예 사회자 옆으로 나와 서 있었고 식장까지 들어와 잘 살라며 축복해 주는 하객들, 그것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신랑, 박수로 축복하는 하객들..... 눈물이 뒤범벅이 된 채 나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로 한 시간이 걸리는 친정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결혼식 내내 곱이 나 있었던 나의 눈치를 살피느라 안절부절 못하던 아버지의 눈길을 묵살하고 말았던 철없는 나의 행동을 용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 두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30년의 세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등 뒤에서 등대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눈물나는 밤엔 우며의 첫뿔▶

단계별 건망증세

- <징후기> 친구 아버지 상가 조문가서 '자네 아버님 안녕하시지?'
- <진행기> 자장면 먹다보면 한 입 베어 먹다 놓은 단무지가 7-8개 쌓여있다
- <심각기> 아침 세면장가서 달랑 칫솔 4개에서 자기 칫솔 색깔 기억안난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35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9월 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Father's Day에 아내에게서 듣고 싶은 말



1.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2. 내가 시집하나는 잘 왔지. 3.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4. 제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봐요.
5.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6.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7. 여보 여기 보약을 한 재 지어 두었어요.
8. 당신만 믿어요. 9. 건강도 생각하세요.
10. 당신없이 하루도 못 살거야. 11. 여보 고마워요.
12.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13.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14.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15. 다시 태어나도 당신 밖에 없어요. 16. 당신 품에 있을때가 제일 편안해요.
17. 당신이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다른 사람은 어렵도 없을거야.
18. 당신은 타고난 인격자예요. 19.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줄 몰라요.
20.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만 사랑의 말을 하고 내 가족에게는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는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엌 속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엌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오락을 위해 가는 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즐기는 오락엔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을 믿는 일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더구나
여자의 회심은
영광이요 축복임을 잊지말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잘 하는 그 한가지를
최대환으로 활용하거라
하나님은 그 한가지를 사용하셔서
네가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5(시 103)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성찬식

성경봉독 고전 11:23-30

어린이와 입교, 세례받은 중고생

분병(기도) 분병위원

분잔(기도) 분잔위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141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길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3:10-1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자유함의 신앙'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13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이재영 집사 가족, 2절: 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9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1	김영길	권용일	윤형권, 신영화	김경숙, 이재영	송영철, 윤형권
8	박일영	김경숙	박상옥, 이금선	김동숙, 양경배	이재영, 임성광
15	이재영	김영길	이재영, 김경숙	김미애, 조용건	전병주, 정관영
22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 이기중	김순자, 정덕수	정덕수, 최득수
29	김순자	신경화	권용일, 이지영	노은숙, 최재학	최재학, 권용일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듣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 많은 사람을 웃겼던 유명 코메디언의 죽음이 우리를 서운하게 합니다. 시대상황이 암울했던 80년대에 그는 우리를 웃게한 통로였고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도 웃겨야 했던 진정한 광대였기에 아쉬움이 더 합니다.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다른 사람들은 웃지만 떠날 때 나는 웃고 사람들은 울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단 하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 안타까움이 큼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아버지주일":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지나온 모든 여정을 행복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남편 모시고 외식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하심을 함께 환영합니다
*이근평, 임숙경 집사(7구역, 2남여선교회) 지훈, 영훈
☎410-8003 ☐1/74 Sunnynook Rd. Sunnynook
- 교우소식: 김순화 성도, 한국방문위해 지난 26일(월)출국.
- 구역예배 주간입니다: 금주 금요일은 한달에 한번 갖는 구역예배일입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식구들에게 모임가정, 시간을 알려드리면서 독려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남선교회 낚시대회: 금주 토요일(7)에 갖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은 아름다운 Beach 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진행문의: 김종원 집사
- 특별수요일예배: "살롬과 익투스"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오uckland 여성중창단 '살롬'과 남성 중창단 '익투스'를 초청하여 그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9월 4일(수) 수요일예배 7:30 pm <장소> 본당
- 성공습관: 성공한 사람들에겐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승리케 하는 습관입니다.
<수요성경강해>: 수요일 저녁 7:30. 출애굽기강해
<새벽기도회>: 매주 금 6:00am(시간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십시오)
- 이웃을 위한 하루를....
*남몰래 외로와하고 고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쯤은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따뜻한 차한잔의 대화로 돌아보는 부요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 작은 소년이 말했다. "전 이따금 숫가락을 떨어뜨려요."
키 작은 노인이 말했다. "나도 그럴단다."
소년이 속삭이듯 말했다. "전 이따금 바지에 오줌을 싸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도 나랑 똑같구나."
소년이 말했다. "전 자주 울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종종 운단다."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섬성한 건 어른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키 작은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소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